논어 5편 공야장 27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已矣乎！吾未見能見其過，而內自訟者也。」

독음 · 자왈 이의호 오미견능견기과 이내자송자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자기 잘못을 알아보고 마음속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탄식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已 이미 이 이 / 矣 어조사 의

乎 어조사 호 / 吾 자기 오 오 / 未 아닐 미 미 / 見 볼 견 견

能 능할 능 능 / 其 그 기 / 過 지날 과 과 / 而 말이을 이

內 안 내 내 / 自 스스로 자 / 訟 송사할 송 송 / 者 놈 자

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